

올해 국채발행 역대최대 전망 회사채 시장 ‘돈맥경화’ 공포

산불피해 지원 등 추경 목소리 커져
20조 추경시 적자국채 15조 예상
기업, 회사채 통한 자금조달 영향

LG화학이 지난 1월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진행한 수요예측. 1조 6750억원의 주문이 몰렸지만, 대다수는 3년물(1조2650억원) 수요였다. 대한항공도 모집액(1500억원) 대비 3배 넘는 주문이 3년물(5790억원)에 집중됐다. 5년물에는 500억원 모집에 810억원 주문을 받는 데 그쳤다. 큰 손 투자자들이 회사채시장과 기업의 ‘장기 전망’을 어렵게 본다는 의미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계의 걱정도 덩달아 확대되고 있다. 국채 발행 증가로 회사채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길이 좁아질 수 있어서다. 싸늘하게 식은 내수 경기와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기업 신용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까지 나오며 기업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와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은 38조 1999억 원으로 나타났다.

당장 2분기(3~4월) 만기도래 규모

는 17조3390억원으로 가장 많다.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13조5685억원, 7조2924억원이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빚을 상환해야 하는 기업들은 고민이다. 영남지역의 산불 피해 규모가 커지자 추경 편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국채 물량이 늘어나면 채권시장 자금 가운데 상당수가 회사채보다 국채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KB증권은 20조원 규모의 추경 규모를 고려할 때 올해 적자국채 규모가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발생한 산불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면 추경 규모는 이보다 커질 수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올해 추정한 국세수입 규모는 38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33조 5000억원)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기불확실성으로 인해 세수입의 진도율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시장은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반영한 상황이나 적자국채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초 대비 금리 인하 기대도 다소 축소된 모습이다”이라며 “추경으로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추경으로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197조6000억원인 데다 추경과 올해 시작되는 외평채 발행까지 고려하면 200조원 중반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금융시장 불안정성도 커질 수 있다.

통상 신용도가 높은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회사채 등 여타 채권들의 금리도 덩달아 상승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추경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면 장기금리, 특히 10년물의 발행 부담으로 금리는 상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 신용 줄강등도 회사채 시장에 부담을 준다. 한국신용평가, 나이스(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3대 신평사가 작년에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회사는 35개(중복 제외)였다. 올해도 홉플러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기업들은 서둘러 회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2025년 2월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실적’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27조 5635억원으로 전달 대비 18.3%(4조 2730억원) 늘었다. 그중 일반 회사채는 10조 7700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3690억원이 증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코스피·코스닥 동반 하락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2643.94)보다 36.79포인트(1.39%) 하락한 2607.15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16.48)보다 8.99포인트(1.25%) 내린 707.49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스

미래에셋증권, 3670억 주주환원 결정

정기 주총 개최... 총 주주환원율 40%

미래에셋증권은 27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제56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내외이사 선임,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는 김미섭 부회장, 허선호 부회장, 전경남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송재용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이점마, 석준희 사외이사가 재선임되고, 문홍성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이익배당도 승인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연결기준자 기자본 12조263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조1881억원(전기 대비 약 128% 증가), 당기순이익은 9255억원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이 27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전기 대비 178% 증가)으로 집계됐다. 배당은 총 1467억원(보통주 250원, 1우선주 275원, 2우선주 250원), 자사주 소각 규모는 약 2203억원으로 결정했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합한 주주환원총액은 3670억원으로, 총 주주환원율은 약 40%를 기록했다. /허정윤 기자 zellkova@

배당株 단기매매 ‘널뛰기’... 기업가치 발목

배당락으로 인해 주가 변동성 커져
‘기업, 미래 투자에 집중할 수 있어야’

3월 배당 시즌을 앞두고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배당락과 단기 매매로 인한 주가 변동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기업들의 배당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배당보다는 성장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다우기술(18.13%), 한세예스24홀딩스(7.59%), 동국씨엠(11.11%), 광주신세계(2.58%) 등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해당 종목들은 모두 이달 31일을 배당기준일로 두고 있으며, 높은 배당률이 기대됨에 따라 투심이 몰리고 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배당기준일 1거래일 전부터는 배당락 위험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배당 액수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배당금 회수를 노리고 단기 매매에 나서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코스피는 44개 종목이 한번에 배당락일을 맞이하면서 지수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시가총액 10위 내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28일 지수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 2월 28일을 배당기준일로 두고 있던 SK하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배당주에 몰리는 개미(개인 투자자)들’ 이미지.

이닉스(-4.52%) 현대차(-3.74%) 네이버(-5.48%) KB금융(-3.09%) 등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네이비는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거래일 동안 10.58% 하락하면서 과도한 낙폭을 보이기도 했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러한 현상들은 시장이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 가능성보다 단기적인 현금 배당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배당을 실시할 시, 미래에 대한 투자자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아마존 등이 배당보다는 미래 투자 방식으로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테슬라는 서학개미(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최선호 종목으로, 배당보다는 기업의 모든 자금을 성장에 재투자한다. 주주에게 기업가치 상승으로 보답한다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아마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메타(페이스북) 등이 배당보다는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하며 주주환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주주친화 정책은 배당 확대다. 한국경영학회에서는 일률적인 방식보다는 세제 혜택, 인수·합병(M&A) 유도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세미나에서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성장성이 각기 다른 산업과 기업에 대해 일률적인 배당 정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투자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기관투자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주주보호·주주환원 등을 확대시키는 것이 국내 기업가치 성장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단,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업종은 자본투자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배당 성향은 27.2로 분석대상 국가 16개국(G20 중 일부 제외)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주주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주주환원 확대가 기업가치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며 “자본적지출 확대를 통한 주주이익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가 병행되는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한공회, 산불피해복구 성금 1억 기탁

최운열 회장 “일상회복 도움 되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을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구호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탁한 구호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 긴급구호 및 피해 복구, 이재민 생필품 및 주거 안전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운열 회장(사진)은 “최근 영남지역에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보신 이재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계업계의 마음과 뜻을 모아 기탁한 구호성금이 전달되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한화투자증권 “현대차 목표주가 31만원”

분기 최대매출 전망... 매수 의견 유지

현대자동차의 1분기 매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화투자증권은 27일 현대차에 대해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 달성이 기대되고, 대미 투자 발표로 대외 불확실성을 정면 돌파해 긍정적인 요인이 주가에 반영될 차라라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1만원을 유지했다.

김성래 연구원은 “현대차는 내연기관차(ICE) 대비 평균판매단가(ASP)

가 높은 친환경차(xEV) 비중 확대 등으로 매출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또한 “고환을 추세가 지속되며 매출 증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1분기 매출액은 44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5% 증가해 분기 단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며 “영업이익은 3조 5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0.2% 감소하나, 연초 추정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정윤 기자